

# 보편적 신화소로서의 주권여신\*

이 건 우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 1. 서론 — 켈트의 상상계와 주권여신

주권여신(Déesse de la souveraineté)은 아일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갈리아 지역을 포함하는 켈트의 신화 기록으로부터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켈트 상상계의 중심 개념이다. 우리의 작업은 켈트 상상계의 원형을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는 『아일랜드 정복의 책(*Lebor Gabala Erenn*)』을 중심으로 켈트 신화 속의 주권여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구 상상계 전체의 모태라 할 그리스 신화, 그 가운데에서도 이를 종합한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속의 여신들의 모습을 다시 읽어, 주권 여신이라는 개념이 켈트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신화소임을 입증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된다.

---

\*이 논문은 2001년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 교수 해외연수 특별지원금에 의해 작성되었음.

주 제 어: 주권여신, 신화, 설화, 켈트, 아일랜드, 그리스  
déesse de la souveraineté, mythe, légende, Celt, Irlande, Grèce

주권여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켈트 문화 연구가들의 정의는 간명하다. 뒤메질(Dumézil)의 비교신화학 연구의 연장선에서, 아일랜드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들의 기능을 분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켈트 연구가들인 르 루(Le Roux)와 기욤바르크(Guyonvarc'h)에 따르면, “여성신은 그 자체가 주권이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주권은 왕국의 번영을 보장하는 풍요에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이다.”<sup>1)</sup> 또 아일랜드의 문학사를 통해 나타나는 여왕들의 면모를 일별하고 있는 클라크(Clark) 역시 주권의 화신으로서의 여신을 “백성에게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주기 위해 왕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땅의 여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은 신화적 상상력의 배경에서 생성된 켈트 세계 전반의 설화들이 주권의 화신으로서의 여성성을 인간 세계에도 적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로마 시대 그 풍속이 널리 퍼진 갈리아 여신 에포나(Epona) 숭배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중세 웨일즈의 설화 속의 리안논(Rhiannon)의 성격을 분석하는 스테르크스(Sterckx)는 전 세계에 걸쳐 널리 퍼져 있는 왕의 신성결혼(hiérogamie)의 전통에 입각하여 여왕을 왕국의 화신이라 결론짓고 있다.<sup>3)</sup>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물론 웨일즈와 갈리아에 이르기까지 켈트의 상상계에서는, 모든 남성

1) F. Le Roux et Ch.-J. Guyonvarc'h. *La Souveraineté guerrière de l'Irlande*. p. 7: “[...] la divinité féminine est elle-même la Souveraineté. Et la Souveraineté en Irlande, est la condition préalable et indispensable, de la fécondité qui assure la prospérité d'un règne.”

2) Rosalind Clark. *The Great queens: Irish goddesses from the Morrigan to Cathleen Ni Houlihan*. p. 4: “The sovereignty of Ireland in pagan times was manifested as the goddess of the land who slept with the king in order to bring victory and prosperity to his people.”

3) Claude Sterckx. *Éléments de cosmogonie celtique*. pp. 50-51: “La Royaume est femme. [...] L'équation de la Royauté et du royaume à une déesses hypostase du Principe Féminin est notamment confirmée par le fait que les vieux textes irlandais ne donnent guère comme définition des théonymes féminins que l'Irlande elle-même ou la Souveraineté de l'Irlande.”

신들이 주권여신의 선택을 받아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의 왕 역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여왕의 선택을 받아 여왕과 혼인하고, 이를 통해 주권을 이양 받았기 때문이다.<sup>4)</sup>

그러나 주권여신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유럽의 변방 신화 가운데서만 유효한 특수 개념이 아니다. 앞서 스테르크스의 예에서 보았듯이 켈트의 신화 전통과는 구분되는 다른 상상계의 신화와 문학이 단순히 왕의 신성결혼이라는 신화적 요소를 넘어 주권여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때 새롭게 읽힐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 민중의 상상계를 보존해오고 있는 각종 설화와 민담은 물론, 전통적 상상력과는 무관해 보이는 기술문명 시대의 대량 소비 대상인 만화와 영화 등의 이야기들이 이 주권여신을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개념이 인류의 상상계를 구성하는 보다 원형적인 요소이며 보편적인 신화소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아일랜드 정복의 책』에 나타나는 주권여신의 모습

### 1) 여성 기원 사회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서구 상상계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은 모두 남성중심주의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헤라 혹은 유논을 명목상의 아내로만 여기는 제우스 혹은 유피테르가 온 세상의 영웅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리스와 로마는 물론, 가부장적 남성성이 유달리 강조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은 모두가,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성을 객체화하고 예측화하면서 여신의 지위를 격하하고 있다. 이에

4) F. Le Roux et Ch.-J. Guyonvarc'h. *op. cit.*, p. 209: “[...] la Souveraineté celtique est, en tout premier, le mariage du roi, qui exerce, qui saisit la Souveraineté, et de la reine, qui la symbolise et la confère.”

반해, 아일랜드를 비롯한 켈트의 신화와 전설은, 이 지역의 로마화와 이에 이은 기독교화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덕분에, 여성 중심 사회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sup>5)</sup>

켈트에는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나 구약의 『창세기』에 해당하는 기록이 없다. 중세에 와서 기독교 수사들에 의해 구전에서 문자로 정착된 아일랜드 신화의 경우도, 우주의 생성은 물론 아일랜드의 기원에 관해서는 따로 전해지는 바가 없다. 다만 문예부흥기 이후에 작성된 유럽의 여타 지역의 설화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창세기』에 기대고 있는<sup>6)</sup> 『아일랜드 정복의 책』은 이미 에텐동산처럼 지상에 존재해 있던 아일랜드 땅에 여러 종족들이 이주해온 역사를 기술하며 이 섬의 생성 설화를 대신하고 있다.

지상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아담의 낙원에 비교될 만큼 비옥한 이 땅<sup>7)</sup>의 역

5) 대륙에 비해 때늦은 기독교화는 아일랜드의 전통적 승려 계급들을 자발적으로 기독교 수사로 변신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구전 전통으로서의 신화와 설화를 10세기를 전후해서 문자화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 기독교로의 개종이 없었다면 이들의 구전 전통은 망실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진우, 「켈트의 신화와 문학」(서울대학교 『인문논총』 특집호, 2002년 5월)을 참조할 것.

6) 문예부흥기에 이르러 작성되는 유럽 각국의 상상적 역사가들이 대부분 트로이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는 것은 로마의 기원을 트로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에네아스(Aeneas) 일행의 이주로 설명하는 베르길리우스(Vergilius. *Aeneid*)의 예를 따르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대흥수 이후에 인류가 모두 노아의 후손이라는 성경의 기록에 따르기 위해 이들은 트로이가 노아의 후손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적고 있다. 팡타그뤼엘의 가계도를 작성하고 있는 라블레(Rabelais. *Pantagruel in Oeuvres complètes*. pp. 305-315)와 프랑스 왕가의 기원을 노래하는 롱사르(Ronsard. *La Franciade*)의 상상력은 19세기 초 샤토브리앙(Chateaubriand. *Analyse raisonnée de l'histoire de la France*. pp. 16-17)에게까지 이른다.

7) *Le Livre des conquêtes de l'Irlande*, §101 in Christian-J. Guyonvarc'h. *Textes mythologiques irlandais I*. p. 4: "L'île d'Irlande est située à l'ouest: comme le

사는 대홍수 40일 전에 시작된다. 최초로 이 땅에 도착한 것은 구약에서 방주를 지어 재난을 피한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라는 비쓰(Bith)와 그의 딸 케싸르(Cessair) 일행이다.<sup>8)</sup> 그러나 『아일랜드 정복의 책』은 또 다음 절에서 『백설 표지의 책(Livre au Dos de Neige)』을 인용하면서 최초로 아일랜드를 찾은 것은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부여한 반바(Banba)라는 여인이라고도 하고 있다.<sup>9)</sup> 그런가 하면 173절에 이르러 이 책은 또 다른 전승을 앞세워, 케싸르 이전에 에스파냐의 어부 셋이 이곳을 찾았다고도 적고 있다.

언뜻 보기에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이 최초의 아일랜드 이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 기록된 사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전승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해준다. 그러나 뒤를 잇는 절에서부터는 케싸르 일행의 이주에 관한 이야기만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을 뿐, 더 이상 반바나 에스파냐 어부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각종 전승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구성하고자 한 이 기록의 작성자는 이미 166절에서 밝혔듯이 노아의 자손이라는 케싸르 일행을 최초의 이주민으로 하여, 기독교와의 마찰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찌되었건 이들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들 사이에는 공통되는 요소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 기록을 프랑스어로 옮기며 주석을 붙인 기욤바르크도 지적하고 있듯이,<sup>10)</sup> 이 세계가 창조되고 대홍수가 나기 전에 최초로 아

---

paradis d'Adam est placé sur la côte sud-est, l'Irlande est dans la partie septentrionale du monde, vers l'ouest. Ces deux pays sont semblables par nature, comme ils sont semblables par leur situation sur le globe.” 이후로 『아일랜드 정복의 책』의 인용은 이 판본에 의한다.

8) *Id.*, §166: “Cessair, fille de Bith, fils de Noë, s'en empara [de l'Irlande] quarante jours avant le déluge.”

9) *Id.*, §167: “Qui fut le premier à s'emparer de l'Irlande après la création du monde? Ce que dit le Livre au Dos de Neige, c'est que Banba fut le nom de la première femme qui s'empara de l'Irlande avant le déluge, et que c'est d'elle que l'on nomme l'Irlande Banba.

10) *Ibid.*, p. 17, Notes explicatives: “L'intéressant dans ce passage est en fait que le

일랜드를 찾은 이들 모두가 여성에 의해 인도되었다는 점이다. 또 케싸르와 반바 두 여성이 이끌고 온 무리는 대홍수 이전에 질병 때문에 혹은 대홍수 때문에 모두가 사라졌지만, 정작 이들 자신이 죽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고, 대신 이들이 아일랜드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남게 된다는 기록만이 있을 뿐이다. 특히 반바의 경우는 『아일랜드 정복의 책』의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하여 밀(Mil)의 아들들과 협상을 벌인다. 또 에스파냐의 어부들이 이야기에서는 세 명의 남자들이 이 땅을 찾은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들은 바로 이곳에 정주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풍요로움을 확인하고는 아내들을 데리러 갔다 돌아와 대홍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이곳에 터전을 잡기 위해 찾아온 이들은 여성에 의해 인도되었거나 적어도 여성과 함께였던 셈이다.

에스파냐 어부들 일행이 결국 남자 셋과 여자 셋이었다면, 반바 일행은 처녀 150명과 남자 셋, 케싸르의 일행은 처녀 50명과 남자 셋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에스파냐 어부들의 경우 이들은 대홍수에 휩쓸려 후손을 남기지 못했고, 대홍수 240년 전에 도착한 반바 일행도 40년간 이 땅에 머물다 모두가 병에 걸려 한 주일 만에 전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그 까닭은 알 수 없으나, 반바와 함께 온 세 명의 남자들 가운데 유독 라드라(Ladra)만을 “이 땅에서 죽은 첫 번째 남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홍수 40일 전에 이 땅을 찾은 케싸르 일행 가운데에도 세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에서도 배를 몰던 라드라는 반바 일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땅에서 죽은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기록과 무관한 상상적 인물인 비쓰는 대홍수를 피한 구약의 노아와 아일랜드 신화의 케싸르 사이의 연결 고리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자신의 할아버지이자 노아의 아버지인 라메흐의 이름과 섞인 거대한 돌무덤의 지명인 베싸흐<sup>11)</sup>로 남아있을 뿐이다. 또 배의 조종을 맡은 라드

---

premier occupant de l'île est une femme.”

11) *Id.*: “[...] Bith, fils de Noë, fils de Lamech, de qui on a appelé Sliab Betha. C'est lui

라는 “너무 많은 여자와 관계를 해서” 혹은 느닷없이 “노에 질러” 죽었고, 그의 이름은 라드라의 언덕(Ard Ladrann)이라는 지명의 기원이 되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은 이들이 각기 아일랜드의 특정 지명의 기원이 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최초의 이 주민들이 여성에 의해 인도되었다는 점과 남녀의 구성비에 있어서도 여성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을 따름이다. 더군다나 세 번째 남성 인물 핀탄이 온갖 모습으로 환생하며 수천 년을 살아남아 드루이드로서 이와 같은 신화적 사실들을 전하는 것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가 인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초자연적 존재임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다.<sup>12)</sup>

결국 케사르의 아일랜드는 대홍수까지 40일간 지속된 여인 왕국이었던 셈이고, 『아일랜드 정복의 책』이 그 첫머리에서부터 이 땅에서 최초로 사망한 남성의 이름을 적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남성성을 필멸의 존재로, 여성성은 죽음을 넘어서는 신격의 표상으로 여기는 켈트 상상계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켈트 상상계가 여성을 그 집단의 기원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 지표들은 이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이 기록이 문자로 정착된 중세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분명 각종 구전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춰 각색되었을 것임은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정복의 책』에는 가부장적 전통으로 읽기에는 기이한 점들이 산재해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을 지적하자면, 우선 이 땅이 스코티아(Scotia)로 그 주민이 스코트(Scots)라 불린 것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며 넬리우스(Nelius)의 아내였던 스코타(Scota)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sup>13)</sup> 또 핀

---

qui a été enseveli dans le grand cairn de Sliab Bethach.”

12) *Ibid.*, p. 5, §177. 핀탄에 관해서는 『타라 지역의 건설(*La Fondation du domaine de Tara*)』(*ibid.*, pp. 169-174)과 F. Le Roux et Ch.-J. Guyonvarc'h. *Les Druides* (Editions Ouest-France, Rennes, 1986, p. 390)를 볼 것.

13) *Ibid.*, p. 4, §101: “Elle [Irlande] est appelée aussi Scotia parce qu’elle est habitée par la nation des Scots. [...] Les Scots sont nommés ainsi de Scota, fille du pharaon

탄을 “보호라의 아들 라메흐의 아들 베싸흐의 아들 라브라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다시 “왜냐하면 보호라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다.<sup>14)</sup> 라메흐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아버지로, 케싸르의 증조부가 되는데, 핀탄의 가계를 밝히면서 이 기록은 라메흐까지는 부계를 따라가다 갑자기 모계로 끝을 맺는다. 결국 최초의 기원을 여성에게서 찾는 아일랜드 전통이 구약의 가계도를 차용하는 가운데에서도 드러난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 2) 여왕의 간통과 왕의 질투

167절에서 반바의 이야기를 꺼낸 『아일랜드 정복의 책』은 이 최초의 이주자들이 질병으로 사라져버린 후 아일랜드는 200년간 비어 있었고, 이후 대홍수에 일년 반 동안 잠겨 있던 섬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야 파르솔론(Partholon) 일행이 찾아와 150년간 거주했다고 적고 있다.<sup>15)</sup> “작은 그리스 미그도니아(Mygdonie)”에서 남자와 여자 각기 네 명 혹은 모두 열 명과 아일랜드에 도착한 파르솔론은 일행과 더불어 대홍수로 황폐해진 이 땅을 개간하지만, 태초부터 이곳에 거주하던 토착 귀신족 포모레(Fomoiré)와의 싸움 끝에 파르솔론이 죽고 그 후손들 역시 페스트에 의해 사라지고 만다.<sup>16)</sup>

---

roi d'Égypte, qui fut l'épouse de Nelius.”

14) *Ibid.*, p. 5, §17 : “Fintan, fils de Labraid, fils de Bethach, fils de Lamech, fils de Bochra, car Bochra est le nom de sa mère”.

15) 그러나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20절에 이르러 이 기록은 파르솔론이 아일랜드에 도착한 뒤 30년만에 죽고, 그가 죽은 지 520년이 지나 그의 일족이 페스트로 전멸한다고 적고 있는가 하면, 또 237절에서는 파르솔론 사후 30년 동안 아일랜드는 비어 있었고, 그 후에 네메드(Nemed) 일행이 도착했다고 적고 있다.

16) 아일랜드를 개간하려는 파르솔론 일행을 방해하는 귀신족 포모레의 존재는 앞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 없지만, 이들이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이주민들의 정착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정복 의지에 저항하는 자연의 힘을 상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기록이 232절부터는 특이하게도, 30년 동안 아일랜드를 개척한 파르솔론 일행의 행적을 담고 있는 앞의 이야기 형식과는 달리, 운문을 섞어가며 여왕 엘그나트(Elgnat)의 간통 사건의 전말에 대해 상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르솔론이 집을 비운 사이 엘그나트는 하인 토파(Topa)를 유혹한다. 이를 물리치려는 토파에게 여왕은 겁쟁이라 놀리며 그의 남성성에 모욕을 가한다. 이에 화가 난 그는 자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여왕의 요구에 응한다. 집으로 돌아와 간통 사실을 알아챈 파르솔론은 아내의 개를 죽이며 분노를 폭발시킨다. 이를 두고 『아일랜드 정복의 책』은 그것이 “아일랜드에 있었던 최초의 질투였다”고 적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노래로 기록하고 있다. 왕은 여왕을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성경의 이브와 비교하며 남편으로서 명예를 잃었음에 분노하고, 여왕은 양과 소 등 가축들이 보이는 춘정을 묘사하며 항변한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기독교적 도덕관을 고양하기 위한 삽화로 읽는 것은 물론 소박하기 짝이 없는 독법에 속한다. 우선 그 형식이 운문을 동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에 있어서도 파르솔론 일행의 아일랜드 체류기 전체와 비교될 정도이며, 또 운문 부분이 앞서 산문으로 이야기된 사실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엘그나트의 간통 이야기는 독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부장적 가치를 주장하는 남편과 본능적 욕구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아내 사이의 다툼을 이렇듯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은, 이를 확대 해석한다면, 문명과 질서의 정착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남성과 풍요의 조건으로서의 자연적 혹은 본능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여성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왕이 자신

---

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아일랜드 정복의 기록이 포모레를 “해적 무리”(같은 책, 8쪽 241절)라 밝히는가 하면, 에스파냐의 밀(Mil)의 자식들이 복수를 위해 아일랜드를 침공하는 다섯 번째 정복 기록은 “악마와 포모레, 즉 다나의 후손”(같은 책, 16쪽 387절)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이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된다.

의 명예가 실추되었음 뿐 아니라 모든 남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그 이유로 들어 여왕을 비난하고 있는 반면, 여왕은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이 동물들처럼 자연적 욕구에 저항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흥미로운 점은, 부정한 아내를 징벌하는 방식이 아내 자신이 아니라 아내의 소유물인 개를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이고, 기록자가 이 사건을 아일랜드 최초의 간통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대신 그것이 “최초의 질투”였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의 영향권 속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삽화는 가부장적 권위와 맞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켈트 상상계의 일단인 것으로 판단된다.<sup>17)</sup>

기욤바르크가 인용하고 있는 르 루의 해석<sup>18)</sup>은 주권여신으로서의 여왕의 면모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준다. 이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부정한 아내 엘가트는 왕들이 바뀌어도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는 주권의 화신으로서의 아일랜드의 여왕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또 부정한 아내를 벌하는 대신 아내의 개를 죽이는 데 만족할 뿐인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만다는 사실은 기독교 이전의 아일랜드에서는 아내의 부정이 아니라 남편의 질투가 비난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경우 여왕의 부정은 왕의 주권(의 화신)에 대한 염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19)</sup>

17) 실제로 『기동 평원의 전투』를 비롯하여 많은 기록들에서 켈트의 여성들이 전투는 물론 부족에게 닥친 주요 사태에 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 F. Le Roux. <<La mythologie irlandaise du *Livre des Conquêtes*>>, in *Ogam* XX. pp. 388-389, note 40.

19) *Le Livre des conquêtes de l'Irlande*, Notes Explicatives 3, p. 18: “L'épouse infidèle se comporte déjà comme les reines d'Irlande: elle est la Souveraineté qui subsiste, intacte et inchangée, à travers tous les rois successifs. La première conséquence, pittoresque, est que le mari outragé, au lieu de corriger la coupable, se contente de tuer son chien. Et c'est lui-même qui meurt peu après, comme un roi usé par

### 3) 주권의 이양과 여왕의 잠자리

파르솔론이 죽고 30년이 지나 대홍수 이후 두 번째 이민이 아일랜드에 도착한다. 스키타이의 그리스인들로 구성된 네메드(Nemed) 일행은 230년간 아일랜드에 머무르지만, 이들은 토착 귀신족인 포모레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만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30명 가운데 일부는 스코틀랜드로 떠나가고, 일부는 다시 그리스로 돌아간다. 원래의 고향 땅에서 200년간에 걸쳐 자손을 번성시키지만, 이들은 이집트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인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가족 주머니로 배를 만들어 피르 볼그(Fir Bolg)라 불린 이들은 박해와 착취를 피해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와 세 번째 이주의 역사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들은 드루이드의 마법으로 구름을 타고 아일랜드를 찾은 네 번째 이주민인 다나 여신의 후예들(Tuatha De Danann)과 벌인 기둥 평원(Mag Tured)에서의 일전에서 패퇴한 뒤, 영국의 다른 섬 지방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들은 후에 귀신족 포모레를 이끌고 기둥 평원으로 다시 와 두 번째 전투를 벌이기도 하지만, 결국 아일랜드의 주권은 다나 여신의 후예들에게로 넘어간다.

반바나 케사르 일행 또는 파르솔론이나 네메드 일행 그리고 피르 볼그와 비교했을 때, 대홍수 이후 네 번째로 아일랜드를 찾은 이주민인 다나 여신의 후예들의 이야기는 켈트 상상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이 피르 볼그와 포모레 연합군과 벌인 전투에 관한 기록이 상당한 양으로 남아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sup>20)</sup> 대홍수 이전 최초의 이주민들을 이끈 반바 혹은

---

l'exercice du pouvoir. L'Irlande préchrétienne pratiquait une morale assez différente de celle de la Bible, jusque dans le Livre des Conquêtes. Elle condamne la jalousie et absout l'infidélité: il est vrai que ce n'est pas n'importe quelle infidélité. C'est au roi de ne pas laisser échapper la souveraineté et, moins solennellement, au mari de ne pas perdre sa femme.”

20) Cf. *Cath Muige Tuired Cunga & Cath Maighe Tured* in Christian-J. Guyonvarc'h. *Textes mythologiques irlandais I*. pp. 25-104.

케싸르가 여성이었다면, 대홍수 이후 세 차례의 이주민들은 모두가 남성들에 의해 인도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이어 아일랜드를 찾은 다나 여신의 후예들은 누아다(Nuada) 왕에 의해 인도되고 있지만, 그 이름에서부터 자신들이 여신의 자손임을 내세우고 있다. 또 대홍수 이전의 이주민들이 구약의 노아의 후손이고, 대홍수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이주민들은 모두 그리스 출신임을 분명히 밝혀져 있다.<sup>21)</sup> 그러나 다나 여신의 후예들의 경우, 『아일랜드 정복의 책』은 304절에서 이들이 “네메드의 아들 짐장이 아르보넬(Iarboln le devin)의 아들인 베싸흐의 후손”으로 “이 세상 북쪽의 섬에서 드루이드의 마법을 배웠다”고 밝히면서도, 306절에 와서는 이들이 “악마인지 사람인지” 그 기원이 불분명하다고도 적고 있다. 피르 볼그가 네메드의 후손인 것처럼 다나 여신의 후예들도 네메드의 후손이라면 실상 이 책이 전하는 이야기는 아일랜드의 패권을 두고 다툼을 벌인 한 부족의 역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에우헤메로스(Euhemeros) 식의 해석의 가능성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나 여신의 후예들의 정체 그 자체다. 이들이 네메드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와는 달리 신통술을 부리는 명실상부한 신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나 여신을 종족의 시조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이 네메드의 후손이 아니라면, 이들은 여성을 시조로 모시는 특이한 부족이 될 것이고, 또 네메드의 후손임에도 여신의 후예라 불린다면 여신이 인간의 후손들을 신족으로 바꾼 것이 된다. 어느 쪽이든 여신의 존재 자체가 이 종족이 남성 원칙보다는 여성 원칙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스 신화의 가야에 해당하는 대모신(大母神)의 신격을 지닌 다나 여신은 켈트 상상계의 기원으로서 주권여신이라는 신화소의 원형이다.

21) 아일랜드의 신화 전통을 기독교의 교리에 맞추고 동시에 아일랜드 이외 지역의 역사와 연관시키려는 이 기록 작성자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기록은 309절에 이르면, 다나 여신의 후예들이 가져온 아일랜드의 명물 가운데 새 왕이 나타나면 소리를 냈다는 신비의 돌(Pierre de Fal)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돌이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태어나 우상들의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을 정도다.

앞서 보았듯이 대홍수 이후 최초의 이주민인 파르솔론 일행에 관한 기록은 엘가트의 간통을 들어 여성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 네메드의 후손인 피르 볼그는 다나 여신의 이름을 앞세운 종족에게 아일랜드의 주권을 넘기고 있다. 비록 여신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대홍수 이전의 이주사에서 반바나 케싸르가 담당할 역할을 고려할 때, 이 이야기들은 모두가 아일랜드 상상계에서 주권여신이라는 신화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 된다.

또 아일랜드의 패권이 피르 볼그로부터 다나 여신의 후예들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전투 양상을 중심으로 전하는 『아일랜드 정복의 책』은 311절에서부터는 이 땅에서의 패권의 이양이 단순히 전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자세히 적고 있다.

첫 번째 기둥 평원의 전투에서 피르 볼그 족이 학살을 당하고 나서 에스파냐의 왕 마그 모르의 딸이자, 피르 볼그 족의 여왕인 탈투가 코일 쿨에 도착했다. 여왕은 일년 뒤 평원이 되어 꽃이 피게 될 때까지 숲을 파괴하였다. 이 탈투는 다나 여신의 후예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때까지 아일랜드의 왕이었던 에르크의 아들 에오후의 아내였다. 에스파냐의 왕 마그 모르의 집에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 에르크의 아들인 에오후였다. 그러나 탈투는 탈투에 자리를 잡았고, 다나 여신의 후예인 두 달의 아들 에오후 가르브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디안 케흐트의 아들 키안은 스칼 발브라고도 하는데, 아들 루그를 그녀에게 양자로 주었다. 세계 때리는 자 발로르의 딸인 에쓰네가 그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탈투는 탈투에서 죽었고, 그녀의 이름이 지명으로 남았다.<sup>22)</sup>

22) *Ibid.*, p. 13, §311: “Cependant Taitiu, fille de Mag Mor, roi d’Espagne, reine des Fir Bolg, arrive à Coill Cum après le massacre des Fir Bolg à la première bataille de Mag Tured. La forêt fut abattue par elle jusqu’à ce qu’elle fût, un an après, une plaine fleurie. C’est cette Taitiu qui fut femme d’Eochu, fils d’Erc, roi d’Irlande, jusqu’à ce que les Tuatha Dé Danann le tuassent. C’est Eochu, fils d’Erc, qui l’emmena d’Espagne, de chez son père, Mag Mor, roi d’Espagne. Taitiu s’établit

이미 앞서도 보았듯이, 피르 볼그의 여왕 탈투의 이름이 지명으로 남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여왕의 주권여신으로서의 기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피르 볼그의 왕이자 남편인 에오후의 죽음은 여왕 탈투로 하여금 새로운 정복자인 다나 여신의 후손 에오후 가르브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 어떤 강제도 개입된 흔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3)</sup> 여왕이 숲을 파괴하고 그 숲이 평원이 되어 꽃을 피울 때까지 1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언급은 어쩌면 죽은 왕에 대한 애도의 표현이거나 혹은 정복자에 대한 저항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왕을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제례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런 명시적 설명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주권 이양은 물리적인 정복에 의해서 촉발되지만, 여왕의 새로운 왕과의 동침으로 완결되는 것이라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결합은 그 자체가 후손을 얻는 결과를 갖지는 못하지만, 대신 이들에게는 양자가 생긴다. 정복을 당한 종족의 여왕과 새로운 정복자가 얻은 양자 루그(Lug)는 전투에서 팔을 잃은 누아다(Nuada)의 뒤를 이어 다나 여신의 후예들을 이끌고 토착 귀신족을 섬멸하는 영웅이 된다. 케사르가 메르쿠리우스라 부른 루그는 빛의 신으로 아일랜드 뿐 아니라 켈트 세계 전체를 통해 어디

---

cependant à Tailtiu, et elle dort avec Eochu Garb, fils de Dui Dall des Tuatha Dé Danann; et Cian fils de Dian Cecht, dont l'autre nom est Scal Balb, lui donna son fils Lug en adoption. Eithne, fille de Balor le fort frappeur, fut sa mère. Puis Tailtiu mourut à Tailtiu et l'on donna son nom à l'endroit."

- 23) 한편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왕 탈투가 잠자리를 함께 하는 두 남자의 이름이 같다는 사실이다. 에오후는 "강력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다나 여신의 후예들의 부신격인 다그다(Dagda)의 별명이며, 아일랜드의 왕들에게 일반적으로 붙여지는 이름이다. Cf. Ch.-J. Guyonvarc'h et F. Le Roux. *Les Druides*. p. 386: "**Eochu** (...) surnom du Dagda, en formule complète *Eochu (ou Eochaid) Ollathir* <<père puissant>>. Mais lorsque le Dagda a été évhémérisé comme roi d'Irlande le nom divin a été oblitéré, et il est resté Eochaid nom royal par excellence."

서나 숭앙받던 신이다.<sup>24)</sup> 『두 번째 기둥 평원의 전투』가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루그의 아버지는 다나 여신의 후예인데 반해 어머니는 포모레의 왕 발로르(Balor)의 딸이다.<sup>25)</sup> 다시 말해 루그는 아일랜드의 토착 귀신족과 아일랜드로 이주해온 새로운 정복민 사이의 결합의 상징임과 동시에 귀신족에 대한 다나 여신족의 승리의 상징이다.<sup>26)</sup>

#### 4) 아내의 죽음과 새로운 여신의 선택

마지막 아일랜드 이주민의 기록인 다섯 번째 삽화는 에스파냐로부터 당도한 고이델(Goidels) 족의 이야기다. 우연히 아일랜드에 상륙했다 다나 여신의

---

24) 케사르, 『갈리아 원정기』, VI, 17: “그들[켈트족]이 가장 크게 섬기는 신은 메르쿠리우스다. 이 신의 신상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 그들은 메르쿠리우스를 모든 기예의 발명가로, 길을 나선 여행자들의 안내자로, 또 가장 많은 돈을 벌게 해주며 장사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신으로 여기고 있다.” 루그의 이름은 갈리아 지방에서는 리용(Lyon), 루딩(Loudun), 랑(Laon), 라이데(Leyde) 등의 옛 이름인 Lugdunum에 남아있다. Cf. M. Dillon, N. K. Chadwick, et al. *Les Royaumes celtiques*. p. 27.

25) *La Seconde bataille de Mag Tured*. §8 in Christian-J. Guyonvarc'h. *Textes mythologiques irlandais I*. p. 47: “Les Túatha Dé conclurent une alliance avec les Fomoiré et Balor, petit-fils de Net, donna sa fille Eithne à Cian, fils de Diancecht. Elle donna naissance à l'enfant riche en victoires, à savoir Lug.”

26) 루그의 탄생과 관련된 다른 전승에 의하면, 귀신족의 왕 발로르는 자신의 딸 에쓰네가 아들을 낳으면 왕권을 잃게 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질까 두려워 토리(Tory) 섬에서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은 세 쌍둥이를 낳는다. 발로르는 아이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지만 이 가운데 루그가 살아남아 다나 여신의 후예들을 이끌고 귀신족을 궤멸시킬 뿐 아니라 외할아버지인 발로르의 목을 벤다. 이를 두고 그린(M. J. Green, *Mythes celtiques*. p. 34)은 귀신족 발로르가 빛의 힘에 의해서만 제압될 뿐인 어둠의 힘을 상징하며, 다나 여신의 후예와 귀신족의 관계는 투쟁적이기는 하지만 또한 상호 의존적인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후예들에게 죽음을 당한 이쓰(Ith)의 복수를 위해 그의 조카들이 아일랜드를 침공한다. 밀(Mil)의 후손들의 아일랜드 정복기가 우리에게 각별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마지막 이주기가 앞서의 이주기들과 여러모로 비교되기 때문이다.

대홍수 이전에 최초의 이주민을 이끌고 당도한 반바가 이곳에서 다시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우연일 수도 있으나, 대홍수 이전에 아일랜드에 도착한 케사르의 아버지의 이름 비쓰(Bith)와 고이텔 족으로 처음 아일랜드에 도착한 이쓰의 이름 사이에도 유사성이 눈에 띈다. 또 반바 혹은 케사르의 이주기가 아일랜드에서 죽은 최초의 인물을 라드라라고 밝히고 있듯, 마지막 이주기는 돛대에 올라가 아일랜드 땅을 살펴보려다 떨어진 에란난(Erannan)이 고이텔 족 가운데 “처음으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sup>27)</sup> 이색적인 것은 그의 무덤이 아모르겐(Amorgen)의 아내 스케네의 무덤과 가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이 지명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죽은 여인 스케네의 이름이 지명으로 남았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밀의 아들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져 서로 먼저 나아가기 위해 각축을 벌이다 이르(Ir)가 부러진 노에 짙려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라드라의 죽음을 에란난과 이르가 그 양태를 나누어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또 대홍수 이전에 아일랜드를 발견했던 어부들이나, 피르 볼그의 여왕으로 아일랜드의 주권을 다나 여신의 후예들에게 이양한 탈투처럼 고이텔 족 역시 에스파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다섯 번째 정복기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달리하고 그 기능을 분산시키고는 있지만, 앞서의 이주민들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이 정복기는 고이텔 진영 최초의 전사자가 “우이케(Uicce)의 아들인 운(Un)의 아내 파스(Fas)”라고 명시하며 “미스 산(Sliab Mis)과 바다 사이가 파스의 무덤 이라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단순히 지명의

27) 선후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항해 도중에 아내가 죽자 시인이자 판관인 아모르겐은 자신들이 당도하게 될 항구에 아내의 이름을 부여하겠다고 결정한다.



기원만이 아니라, 켈트의 여성은 남성과 함께 전투에도 참여했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아모르겐의 아내 스케네의 죽음 역시 지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뒷받침 하는 것은, 이 기록이 390절부터 고이렐 족과 반바(Banba), 포틀라(Fotla) 그리고 에리우(Eriu) 사이의 협상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적고 있으며, 그 내용이 한결같이 아일랜드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밀의 아들들이 상의하러 간 반바는 징조가 좋지 않다며 자신의 이름이 아일랜드의 이름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문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반바가 이들을 돕는 조건일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모르겐은 반바가 아일랜드를 가리키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는 약속을 한다. 그런데 이 기록은 다시 『백설 표지의 책』을 인용하여, 자신이 대홍수의 노아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주장하는 이 여인이 아일랜드 최초의 이주민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복의 책』은 또 391절에서 포틀라 역시 동일한 요구를 했으며, 그녀의 이름도 아일랜드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적고 있다. 반면에 에리우에 관한 기록은 훨씬 더 자세하다. 밀의 아들들에게 매우 좋은 예언이 있었다고 말하며 앞선 여인들과 마찬가지로의 요구를 하는 에리우에게 시인이자 판관인 아모르겐은, 에버 돈(Eber Donn)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아일랜드의 “주요 이름(principal nom)”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모두가 예언가로 등장하는 이들 세 여인에 대해 기욤바르크는 아일랜드 땅 자체를 상징하는 주권의 화신으로서의 여왕들이라 해석한다.<sup>28)</sup> 이 같은 해석은 이 여인들의 요구가 단지 아일랜드의 이름일 따름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28) *Le Livre des conquêtes de l'Irlande*, Notes Explicatives 7, 1980, p. 22: “Suivent des pourparlers, non pas avec les trois rois, mais avec les *reines*, Banba, Fotla, Eriu, autres noms de l'Irlande symbolisant la souveraineté, souveraineté de toujours, inhérente à la terre, mais qui se conquiert ou s'acquiert par le droit et par les armes. Elle est aussi ancienne que l'île puisque, lorsqu'on lui demande son âge, Banba répond qu'elle est plus vieille que Noë.”

또 이쓰가 처음 아일랜드에 상륙했을 때, 사람들은 그곳이 “엘가의 섬(Île d'Elga)”이며 세 명의 왕이 다스린다고 알려준다. 물론 여기서 엘가는 아일랜드 최초로 질투를 불러일으킨 파르솔론의 아내 엘그나트를 가리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sup>29)</sup> 또 왕이 셋이라는 사실은 반바, 포틀라 그리고 에리우 등 여인들의 숫자가 셋인 까닭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섬이 엘가의 섬이라 불린다는 사실은 현재 아일랜드를 통치하는 왕이 누구이건 간에 이 땅이 여성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곳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세 여인은 모두가 자신의 이름이 아일랜드의 이름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이텔 족 가운데 바다에서 죽은 스케네와 전투에서 죽은 파스가 모두 지명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본다면 흥미로운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니까 항해와 전투에서 아내를 잃은 이주민들이 이주지의 여인들과의 협상을 하게 되고, 이주의 조건으로 이 여인들의 이름이 그 땅의 이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면서 옛 신을 새로운 신으로 대체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밀의 형제들 가운데 장남인 에버 돈의 항변이다. 에리우가 밀의 아들들에게 아일랜드가 그들의 땅이 되어, 그들의 자손이 번성할 것임을 예언하고,

29) 르 루와 기욤바르크는 이 이름의 어원을 “소 귀족” 혹은 “작은 아일랜드”를 의미하는 *Elg* 혹은 *Elga*와 연관시키고 있다. Ch.-J. Guyonvarc'h et F. Le Roux. *Les Druides*. p. 385: “**Elgnat**: nom de la ou d'une femme de Partholon, le premier occupant mythique de l'Irlande après le déluge. Il semble qu'il y ait eu confusion de Dergnat (<<puce>>), de *Delgnat* (<<petite broche>>) et de *Elgnat* à cause d'un autre nom métaphorique de l'Irlande: *Elg* (<<noble, fameux, célèbre>>) ou *Elga*, qui apparaît dans un assez grand nombre de textes (...). Le sens serait donc, au choix, <<petite noble>> ou, avec plus de probabilité, <<(petite) Irlande>>, en conséquence et en confirmation du fait que tout maître d'un lieu a pour épouse la Souveraineté de ce lieu et autant d'épouses que la Souveraineté a de noms.

아모르겐이 이를 받기자, 에버 돈은 에리우에게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0)</sup>

결론적으로 대홍수 이전과 이후 수차에 걸친 아일랜드 이주기는 신화적인 이주민 세대들의 이야기들을 연대기적으로 작성한 기록인 것처럼 보이지만, 레비스트로스가 테베 왕가의 신화소를 분석한 방식대로<sup>31)</sup> 그 사건들을 공식적으로 배열하면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동일 구조로 만드는 중심 개념이 주권여신이다.

### 3.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주권여신의 모습

그리스의 신화 세계를 정리한 헤시오도스의 『신통기』<sup>32)</sup>는 각종 전승을 모아 논리적 일관성을 지니도록 집대성한 작품이다. 이때 신화란 단순한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니라 신과 인간 세계의 기원과 만물의 운행 법칙에 대한 설명 체계다. 다시 말해 신화란 “통일된 담론 집합으로 그 영역의 광범위함과 내적 일관성으로 해서 철학에 필적하는 복잡하고 엄격한 독창적 사유 체계다.”<sup>33)</sup> 그러나 논리적 일관성 혹은 설명 체계라는 말은 곧 그것이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의미로 읽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베르낭을 비롯한

30) 이에 에리우는 에버 돈의 자손은 이 섬에서 살 수 없으리라는 예언으로 응답하며, 자신의 이름이 아일랜드의 이름에 붙여질 것을 요구한다. 과연 에버 돈은 두 번째 아일랜드 상륙을 시도하다 배가 침몰하여 죽고 만다.

31) Cl. Lévi-Strauss. *Anthropologie structurale*. p. 236.

32) 이후로 헤시오도스의 인용은 마종의 그리스어 프랑스어 대역판(Hésiode. *Théogonie, Les Travaux et les jours, le Bouclier*, texte tabli et traduit par Paul Mazon)의 행수만을 표시한다.

33) Jean-Pierre Vernant. *Mythe et société en Grèce ancienne*. p. 207: “Une mythologie est un ensemble narratif unifié qui représente, par son champ et par sa cohérence interne, un système de pensée original, aussi complexe et rigoureux à sa façon que peut l’être, dans un registre différent, la construction d’une philosophie.”

많은 신화학자들이 지적한 대로,<sup>34)</sup> 결국 제우스에 의한 올림포스의 절대권의 인정을 위한 기록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패권 경쟁의 정치사일 수밖에 없다.<sup>35)</sup>

실제로 『신통기』는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여성에서 남성으로 중심이 이동해 가는 것을 문명 세계의 운행 질서가 잡혀가는 것과 동일시하고, 그것이 곧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의 패권 장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무엇보다 우라노스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지와 동등한” 혹은 “광대한” 하늘이라 부르고, 크로노스에 대해서는 “간교한 생각을 가진 신”(137)이라 부르는 헤시오도스가 올림포스의 신들을 “모든 은혜를 베풀어주신 신들”이라 칭하고, 제우스에 대해서는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또는 “신들 가운데 최고이고 가장 위대한 신”(45~49)이라 칭송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 시인으로서 『신통기』를 열면서 헤시오도스는 무사이에 대해 노래하지만 이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신들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위대하고 신성한 헬리콘의 여왕들이신 무사이를 노래하자. 때로 크로노스의 전능하신 아드님의 제단과 짙은 빛 물의 샘터 주변에서 무사이 들께서는 그 영묘한 발길로 춤을 추시노라.<sup>36)</sup>

## 1) 정치적 신화에서의 여신의 자리

『신통기』에 의하면 태초에 카오스<sup>37)</sup>가 있었고, 이후로 “모든 생명에게 영원

34) Jean-Pierre Vernant. *Les Origines de la pensée grecque*. pp. 106-107: “La Théogonie d’Hésiode se présente ainsi comme un hymne à la gloire de Zeus roi.”

35) 물론 마르셀 데티엔느가 지적하는 대로 베르낭의 정치 우선론은 톰슨의 경제 우선론과는 대조되는 주장이다. Cf. Marcel Détiennne. *L’Invention de la mythologie*. p. 218.

36) 헤시오도스, 『신통기』, 1-5.

히 주어진 안정된 토대, 넓은 가슴을 가진 대지모신(가야)”(117~118)으로부터 모든 신들의 탄생이 비롯된다. 가야는 홀로 “별이 가득한 하늘(우라노스)”을 낳고, 다시 아들과 결합하여 산과 강은 물론 크로노스를 비롯한 티타네스 등을 낳는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눈이 하나뿐인 퀴클롭스와 50개의 머리에 100개의 팔을 가진 기간테스들도 태어난다. 그 흉한 모습에 놀란 우라노스는 이들을 대지의 가슴 속에 묻어버린다.

우라노스의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지모신은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응징할 것을 제안한다. 헤시오도스는 아버지의 과도한 생식력을 증오한 아들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거세하고 불멸의 신들의 왕이 된다고 적고 있다. 그러니까 우라노스에 의한 무한 창조에 제동을 걸어 또 다른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질서를 이룩하려는 아들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거세하는 것이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라노스가 왕성한 생식력을 보이며 괴물들까지 양산하는 반면, 크로노스는 자신의 자식들을 삼켜 생명의 확산을 막는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라노스의 제거는 크로노스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가야의 사주에 의한 것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거세하는 데 사용한 강철 낫을 버린 것이 대지모신이고, 자식들을 설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모든 준비를 한 것 역시 대지모신 가야다. 더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시인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 가야의 이야기를 직접화법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와 미치광이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여, 나를 믿고 따르면 우리는, 아무리 너희들의 아비이기는 하지만, 한 아비의 가증스러운 모독을 응징하리라. 그가 못된 일을 먼저 생각했으니 말이다.<sup>37)</sup>

37) 마종은 이를 심연(Abîme) 혹은 허공(Vide)이라 번역하고 있다.

38) 헤시오도스, 『신통기』, 163-166.

하지만 우주의 지배권은 크로노스에게로 이어지고, 자신이 아버지를 거세 했듯 자신도 아들에게 권좌를 빼앗길 것임을 알기 때문에 크로노스는 자신의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린다. 이를 가슴 아파하는 레아는 가야와 우라노스와 상의하여, 이들의 충고대로 막내 제우스가 태어나자 대지모신에게 맡기고, 대신 돌덩이를 강보에 싸 크로노스에게 건넨다. 그 결과 대지모신의 품속에서 자란 제우스는 크로노스와의 결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우주의 패권은 올림포스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결국 크로노스를 제거하기 위해 레아와 제우스가 전면에 나서지만 이 모든 것은 우라노스의 동의 아래 가야가 꾸미고 이룬 일인 셈이다.

그리스의 신화 세계의 전면에서 물러선 최초의 대지모신 가야 여신의 정치적 개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들의 세력 다툼에 관여하는 가야의 모습은 올림포스 신들의 권세가 확정되는 티타노마키아에서도 확인된다. 대지모신 가야는 제우스와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10년이나 지속되어온 티타네스 무리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크로노스가 땅속에 가둔 기간테스 무리를 불러올 것을 충고하기도 한다.<sup>39)</sup> 그런가 하면 가야는 자신이 낳은 티타네스가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자 타르타로스와 결합하여 티포에우스를 낳아 저항하기도 한다(820~822).

우라노스의 어머니면서 아내로 격하되어 반기를 든 가야에 비해,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의 역할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림포스의 주신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비록 세계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투에 사로잡힌 아내로 그려지면서도 대지모신 가야의 모습을 상당 부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가야처럼 남편을 거세할 계획까지 세우지는 못하지만, 주신의 아내로서 헤라는 남편의 무한 생식에 제동을 걸기 위해 레토와 같은 여신들은 물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성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신통기』는 이러한 모습의 헤라를 헤라클레스를 핍박하기 위해 레르네 호수의 히드라를 키워내는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아내 정도로 묘사하고 있

39) 같은 책, 623-628.

지만(312~316), 다른 전승들에 따르면 헤라는 남편이 뿌린 씨앗을 없애기 위해 대지와 관련된 각종 괴물들을 보내고 있다.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을 잉태한 레토의 출산을 막기 위해 그 어떤 땅도 레토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명한다든지, 첫 번째 디오니소스로 알려진 이야코스를 죽이기 위해 가야의 품에서 태어난 티타네스를 보낸단든지 하는 예들이 헤라가 대지모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가야가 홀로 하늘(우라노스)은 물론 산과 강 그리고 대양 등을 잉태해 냈다면, 헤라 역시 홀로 헤파이스토스를 낳는(926~929) 것으로 묘사하는 『신통기』는, 헤라가 제우스의 아내로서 그저 부수적인 신격을 가진 여신이 아니라 가야라는 주권여신의 또 다른 모습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여성혐오증의 세계 속의 주권여신과 영웅담

가야와 레아 그리고 헤라의 모습이 여러 면에서 중첩되고 있고, 또 우라노스와 크로노스 그리고 제우스 사이의 패권의 승계가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여성신들에 대한 남성신들의 승리라는 결과로 요약된다. 헤시오도스는 우주의 패권을 중심으로하는 정치적 측면 이외에서도 여성 비하적 관점을 넘어 여성 혐오증마저 보이며 남성 중심 세계로의 이양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보다 판도라의 이야기일 것이다. 메코네 협정 이래 프로메테우스와 인류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온 제우스는 자신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을 사용한 인류를 징벌하기 위해 헤파이스토스로 하여금 흙으로 여인을 빚게 한다.

제우스께서 선물로 이 너무나 아름다운 해악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강한 신의 따님이신 초록빛 눈의 처녀로 하여금 휘황하게 치장하게 하시고는, 신들과 인간들이 모인 자리로 데리고 가셨다. 그러자 불멸의 신들은 물론 필멸의 인간들 모두가 인간에게 주어진 이 깊이를 모르고 출구를 모를 함

정의 모습에 경탄해마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여인으로부터 필멸의 인간들 사이에 자리 잡은 끔찍한 재앙, 여자라는 저주받은 무리, 그 족속이 태어났기 때문이다.<sup>40)</sup>

제우스가 불쾌하게 생각한 메코네의 속임수로부터 불을 훔친 일까지 모두가 프로메테우스에 의한 것이고, 인류 전체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결과로 생긴 재앙을 여성에게로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관점이 엠페도클레스에 기대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입을 통해 남성우월주의를 전하고 있는 플라톤의 『향연』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41)</sup>

철저한 남성중심주의 세계 속에서 주권여신의 모습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패권을 되찾고자 노력하지만 남편의 거세라는 복수극에도 불구하고 주권여신의 자리를 회복할 수 없는 가야와 소극적인 저항만을 보일 뿐인 레아 그리고 기껏해야 질투에 찬 아내로 회화화된 헤라 정도로 보일 따름이다. 그러나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의 틀을 넘어서면, 주권여신의 흔적은 고대 그리스의 전통 도처에서 발견된다. 특히 시련의 극복을 통해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는 내용을 가진 영웅담의 경우, 그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입문의식(rites d'initiation)이겠지만<sup>42)</sup> 그 잠재적 동인은 주권여신의 신화소임이 명백하다.

아르고 호를 타고 그리스 반도의 온갖 영웅들과 모험에 나서는 이야손의 경우 황금 양털을 얻는 것이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길이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야손 자신의 힘이나 계략이 아니라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의 딸 메데이아의 마법 덕분이었다.<sup>43)</sup> 그것은 테세우스가 크레타의 미궁

40) 같은 책, 585-593.

41) Platon. *Le Banquet*, Notice de Léon Robin. Texte établi et traduit par Paul Vicaire. pp. 29-37.

42) Marie Delcourt. *Légendes et cultes de héros en Grèce*. pp. 99-100.

43) 이후의 신화 이야기는 그리말(Pierre Grimal)의 『그리스 로마 신화 사전



에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살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 덕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웅의 탄생은 결국 극복의 대상이기도 한 적대국 공주의 선택에 의한 것인 셈이다. 또 메데이아가 이야손의 배신을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듯, 아리아드네의 동생이며 분신인 파이드라는 테세우스의 전설 자식인 이폴리토스의 죽음을 가져온다. 비록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남편의 자식을 죽인다는 점에서 메데이아와 파이드라는 질투의 화신으로서의 헤라 여신의 모습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딸 다나에가 아들을 낳으면 손자에 의해 죽음을 당하리라는 신탁을 받고는 딸을 지하에 청동으로 만든 방에 가둔다. 하지만 제우스는 황금비가 되어 다나에의 방으로 스며들고 결국 페르세우스가 태어난다. 아크리시오스의 운명은 외손자의 살해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논외로 한다면 아일랜드 신화 가운데 루그의 외할아버지 발로르와 같은 운명이다. 또 오이디푸스와 그의 생부 라이오스 사이에서 일어난 일도 부자 관계인가 혹은 조손 관계인가를 논외로 한다면 앞의 경우들과 동일한 구조로 파악된다.

마리 델쿠르에 의하면, 친부살해를 가장 큰 범죄로 여겼던 고대 그리스에서 부자 사이의 의도적 대결이 표현된 것은 우라노스와 크로노스 그리고 제우스의 경우에 한정될 뿐이며, 인간의 경우에는 부왕이 자발적으로 왕위를 물려주거나, 후계자가 자신도 모르고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를 죽이거나, 혹은 공주를 두고 미래의 장인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고 왕위를 승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sup>44)</sup>

영웅의 모험이 결국은 왕위 획득으로 완성된다고 할 때, 이야손과 테세우스의 경우는 적대국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아 무훈을 이루어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된다. 적대국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곧 장애의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만, 이는 또 여인의

(*Dictionnaire de la mythologie grecque et romaine*)<sup>1</sup>에서 추출한 것이다.

44) Marie Delcourt. *Op. cit.*, pp. 104-105.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적대국의 보물을 손에 넣는 행위이기도 하다. 또 페르세우스와 오이디푸스의 경우는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 혹은 여왕과 혼인하므로써 정복자로서 왕위를 획득한다. 결국 어느 경우나 왕위의 계승은 여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리스의 신화와 전설이 보여주는 상상계가 왕권 승계에 있어 부계를 당연시했는가 하는 점이다. 에티오피아의 공주 안드로메다를 두고 벌이는 페르세우스와 그녀의 삼촌이자 약혼자 피네우스와의 쟁투는 결국 왕위를 놓고 벌이는 부계 계승자와 모계 계승자 사이의 다툼인 셈이다. 또 벨레로폰테스가 프로에토스의 아내 스테네보이아의 유혹을 물리친 까닭에 겪어야 하는 키마이라와의 대결과 같은 시련이 오히려 영웅의 자질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프로에토스의 부탁을 받은 이오바테스는 자신의 딸을 영웅과 맺어주어 왕국을 물려준다.

이 같은 사실들은 모두가 남성주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던 그리스와 로마의 상상계에서조차도 왕권의 승계가 반드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그 가장 두드러진 예 가운데 하나가 돌아오지 않는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를 두고 벌이는 구혼자들의 각축이다. 만일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의 왕권 승계가 당연한 것이라면 이미 20세가 된 텔레마코스의 왕위 계승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타카를 차지하기 위해 오디세우스의 미망인을 두고 벌이는 구혼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 극단적인 경우가 오이디푸스의 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오이디푸스는 어머니와 결혼하므로써, 다시 말해 대지(여신)와 결합하므로써 자신이 정복자임을 입증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관한 고전적 정신분석의 선입관은 배제하기로 하자. 어머니와의 결합이 어찌면 때로 억압된 욕망에 답하는 것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실현되건 꿈을 꾸건 아니면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기만 해도, 그것

은 영토의 획득과 맞먹는 신성결혼이 된다.<sup>45)</sup>

신화연구가의 이러한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속정신분석학을 주창한 드브뤼(Devereux)는, 생부를 알지 못하는 사회가 존재했으며, 성적으로 적극적이면서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은 여성 사회가 존재했으리라는 사회종교학적 가정과 더불어, 부계사회를 구성하는 그리스인들이 이주해온 헬레니즘 문화 이전의 그리스에는 모계사회가 존재했으며, 왕권은 여성들을 통해 승계되었고, 승계 의식이 전왕의 살해와 여왕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그리스 신화 속의 여성이라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sup>46)</sup> 비달 나케의 설명도 마찬가지다. “생부를 죽이고 생모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정복자가 되는 주위온 아이가 왕위에 오른다는 신화의 의미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sup>47)</sup> 오이디푸스는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피정복국의 여왕과의 결혼을 통해 정복자로서 피정복국의 주권을 인수한 것일 뿐이다.

그리스 신화학자들의 견해에 기대어 주권여신의 신화소를 일반화하여 생각해본다면 왜 트로이 전쟁이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나를 짐작해볼 수 있다. 왕국의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왕에게 있는 것이고, 파리스를 따라 트로이로 간 헬레네는 단순히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바로 헬라스 세계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 결국 그리스 반도와 트로이의 전쟁의 이야기는 에게 해를 사이에 두고 두 지역이 벌인 주권의 쟁패를 원형적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비록 잠재적이고 상징적인 상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권여신이라는 신화소는 그리스 신화의 세계 속에서도 유효한 개념이다.

45) *Ibid.*, p. 109.

46) Georges Devereux. *Femme et mythe*. p. 16.

47) Pierre Vidal-Naquet. *Mythe et tragédie*, tome II, p. 155: “celle [la légende] d’un enfant trouvé et conquérant pour qui tuer son père et coucher avec sa mère n’a peut-être pas d’autre signification que celle d’un mythe d’avènement royal.”

#### 4. 결론 — 주권여신 개념의 보편성

켈트의 상상계는 기독교와 만나 일련의 설화들을 생산하고, 이 전통은 중세에 이르러 아더 왕과 원탁의 기사들의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국왕에 대한 충성심에서 성배를 찾기 위해 벌이는 기사도적 모험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피상적인 독서의 결과가 될 것이다. 실상 아더 왕의 이야기는 성배 탐색의 주제를 첨가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형태로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성배를 찾아나서도록 만든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아더 왕이 병들고 대지가 불모의 땅으로 변한 것은 여왕 그니에브르가 의도적이건 아니건 아더 왕에게 충실하지 않았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여왕은 주권여신으로서 새로운 왕을 선택한 것이고, 이 때문에 병상에 누운 아더 왕의 회복을 위해 원탁의 기사들은 기독교 상징으로 변신한 성배를 찾아 나선 것이다.<sup>48)</sup>

물론 주권여신의 신화소는 켈트 상상계를 상속한 유럽의 민담 전승에서 쉽게 발견된다. 마법에 걸려 잠이 든 공주를 깨워 왕국을 물려받는 왕자의 이야기 「잠자는 숲 속의 미녀(*La Belle au bois dormant*)」가 주권여신과의 혼인을 통해 주권을 얻는 자명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면, 여왕을 잃고 광기에 빠져 딸에게 구애하는 왕의 이상스런 모습을 전하는 「당나귀 가죽(*Peau d'âne*)」은 여왕을 잃은 왕이 주권의 승계자인 딸과의 혼인을 통해 주권을 유지하려는 이야기로 읽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드러낸다. 『로빈 후드』 역시 지역의 주권여신인 마리안을 둘러싸고 로빈이 노팅햄의 성주와 벌이는 각축을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또 오이디푸스의 예처럼 햄릿의 경우에서도 주권의 화신으

48) 성배가 켈트는 물론 인도 유럽어권 전역에서 전래되어 온 상징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시 웨스턴, 『제식으로부터 로망스로』(정덕애 역, 문학과학지성사, 1988), Y. de Pontfarcy. <<Archétypes indo-européens et celtiques du Graal>> in *Graal et Modernité*를 참고할 것.

로서의 여왕의 모습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덴마크를 무대로 하는 셰익스피어의 극에서도 어느 경우든 여왕과 혼인한 자가 왕이 된다. 햄릿의 아버지와 삼촌은 모두가 여왕과 결혼한 자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했지만, 햄릿은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광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 신화를 통해 보았듯 주권여신의 신화소는 단순히 켈트 상상계만의 유산도 또 인도 유럽어권만의 유산도 아니다. 공주를 웃게 만들면 혹은 공주와 결혼하면 영토의 반을 준다던가 하는 내용의 유럽의 전래 민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승 가운데에서도 주권여신의 모습은 쉽게 발견된다. 웅녀가 단군의 탄생을 소원하여 환웅에게 빌고, 낙랑 공주가 호동 왕자를 위해 자명고를 찢는 것은, 주권의 소지자가 여성이며, 여성의 선택에 의해 주권이 양여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백제의 왕자 서동은 신라의 공주 선화를 얻기 위해 노래를 지어 부른다. 처용이나 수로부인 이야기 속에서 인간과 귀신 혹은 용신이 여인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것도 모두 주권여신이라는 신화소를 통해 볼 때 동일한 구조를 드러낸다. 또 미친한 신분의 여인이 보인 사랑과 정절의 모범으로 규정되곤 하는 『춘향전』을 남원 고을의 주권여신을 두고 벌여지는 외지인 이몽룡과 변학도 사이의 쟁패라 읽을 수 있다.<sup>49)</sup> 심청의 이야기, 박씨 부인전 등의 고소설은 물론 『이수일과 심순애』, 『홍도야 우지마라』 등의 신파극, 더 나아가 매일 같이 텔레비전을 넘쳐나는 연속극들의 공통적 주제인 결혼 지상주의가 주권여신이라는 신화소의 흔적일 수 있을 것이다.

주권여신의 흔적은 미국의 대중문화 가운데에서 가장 쉽게 발견된다. 서부

49) 감옥에 들어간 춘향의 원형이 동굴 속에 들어간 단군신화의 꿈이라는 견해는 이미 널리 퍼져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윤경수, 「춘향전의 창작동인과 신화원형비평 연구」, 『도해 한국신화와 고전문학의 원형상징성』(태학사, 1997, 465-488쪽), 설중환, 「꿈꾸는 춘향」(나남, 2000, 112-113쪽)을 참조할 것. 특히 설중환은 또 한국 전래 “고소설에서 전기성을 수행하는 것이 왜 남자가 아니고 하필 여자인가”를 질문하며, 이를 “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며, “우리 조상들은 여자와 신이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하고 있다(같은 책, 121쪽).

극에서 땅을 지키려는 남편과 가정을 지키려는 미덕의 화신인 그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이 위협에 뛰어 들고, 타잔과 조로 그리고 배트맨과 슈퍼맨은 언제나 한 여인을 두고 악당과 대결을 벌이고, 『별들의 전쟁』 연작에서는 우주의 여왕이 될 공주를 구하기 위해 젊은 영웅들이 모험에 나선다. 서부극의 전통을 잇는 헐리우드의 각종 형사 범죄물 등 그 예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대중의 관심을 끄는 만화나 텔레비전의 연속물 또는 영화 가운데 각종 영웅담들이 늘 여주인공을 두고 주인공과 악당이 벌이는 쟁투를 중심으로 구조화된다는 사실이, 비록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존재로 객체화되기는 하였지만, 주권여신이라는 신화소의 보편적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면을 쓴 의적 검객 조로는 1919년 존스톤 맥컬리(Johnston McCulley)의 연작소설에 의해 탄생되었다. 텔레비전 연속물까지 포함하면 수십 편이 만들어진 조로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최근작인 마틴 캠벨(Martin Campbell) 감독의 『조로의 가면(The Mask of Zorro)』(1998)은 주권여신의 신화소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돈 디에고는 식민지 학정의 주범인 돈 라파엘에 맞서 가면을 쓰고 약자 편에 서서 싸우는 목장주다. 돈 디에고에게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기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돈 라파엘은 조로를 잡아들이면서 그의 아내를 살해하고 갓난 아이 엘레나를 빼앗아 자신의 딸로 키운다. 20년이 지나 탈옥한 돈 디에고는 젊은 도적인 알레한드로를 새로운 조로로 훈련시켜 돈 라파엘의 음모를 분쇄하고 자신의 딸을 되찾는다. 물론 젊은 조로는 여주인공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정을 꾸미고 돈 디에고의 잃어버린 목장을 되찾고 유력 인사가 된다. 거의 한 세기에 다가가는 캘리포니아 판 로빈 후드의 역사 가운데 주권여신의 이동과 주권의 이동이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일치된 적은 없었다.

대중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오락거리만은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집단무의식이라 불러도 좋을 대중의 잠재된 욕구의 형상화이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야기 구조일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단순한 구조를 답습하는 모험담이어야 하고, 그 결말은 암묵적으로 합의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것은 아

마도 신화의 내용이 이미 청중이나 독자들에게 알려져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작품화된다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주권여신을 축으로 하는 원형적 구조는 오랜 동안에 걸쳐 영웅담으로 각색되었고, 007 연작물의 본드 걸들처럼 여인은 영웅의 무훈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온 것도 사실이지만, 또 현대판 모험가들은 많은 경우 부와 명예를 버리고 순수한 사랑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주권여신이라는 보편적 신화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로 우리에게 내면화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

## 참고문헌

- Chateaubriand (François-René de), *Analyse raisonnée de l'histoire de la France*. La Table ronde, Paris, 1998.
- Clark (Rosalind), *The Great queens: Irish goddesses from the Morrigan to Cathleen Ni Houlihan*. Irish Literary studies 34, Barnes & Noble Books, Savage, Maryland, 1990.
- Delcourt (Marie), *Légendes et cultes de héros en Grèce*. P.U.F., Paris, 1992.
- Détienne (Marcel), *L'Invention de la mythologie*. Coll. <<Tel>>, Gallimard, Paris, 1981.
- Devereux (Georges), *Femme et mythe*. Coll. <<Champs>>, Flammarion, Paris, 1982.
- Dillon (Myles), Chadwick (Nora K.), Le Roux (Françoise) et Guyonvarc'h (Christian-J.), *Les Royaumes celtiques*. Traduction de l'anglais et des textes originaux irlandais et gallois. Edition mise à jour et augmentée. Editions Armeline, Crozon, 2001.
- Green (Miranda Jane), *Mythes celtiques*, traduit de l'anglais par Marie-France de Paloméra. Coll. <<Points>>, Seuil, Paris, 1995.

Guyonvarc'h (Christian-J.), *Textes mythologiques irlandais I*, volume I, Celticum 11/1, Rennes, 1980.

Le Roux (Françoise), <<La mythologie irlandaise du *Livre des Conquêtes*>>, in *Ogam* XX, 1968.

Le Roux (Françoise) et Guyonvarc'h (Christian-J.), *La Souveraineté guerrière de l'Irlande*. Celticum 25, Rennes, 1983.

\_\_\_\_\_, *Les Druides*. Editions Ouest-France, Rennes, 1986.

Lévi-Strauss (Claude), *Anthropologie structurale*. Plon, Paris, 1958.

Platon. *Le Banquet*, Notice de Léon Robin, Texte établi et traduit par Paul Vicaire in *Oeuvres complètes*, tome IV, 2e partie, Les Belles Lettres, Paris, 1992.

Pontfarcy (Yolande de), <<Archétypes indo-européens et celtiques du Graal>> in *Graal et Modernité. Cahiers de l'Hermétisme*. Dervy, Paris, 1996.

Rabelais (François), *Oeuvres complètes*. Edition établie, annotée et préfacée par Guy Demerson, Seuil, Paris, 1995.

Sterckx (Claude), *Éléments de cosmogonie celtique*. Editions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Bruxelles, 1986.

Vernant (Jean-Pierre), *Les Origines de la pensée grecque*. P.U.F., Paris, 1962.

\_\_\_\_\_, *Mythe et société en Grèce ancienne*. La Découverte, Paris, 1974.

Vernant (Jean-Pierre) et Vidal-Naquet (Pierre), *Mythe et tragédie*. La Découverte, Paris, 1986.

설중환, 『꿈꾸는 춘향』, 나남, 2000.

윤경수, 『도해 한국신화와 고전문학의 원형상징성』, 태학사, 1997.



**RESUME**

---

## La Déesse de la souveraineté comme figure mythique universelle

Lee, Gonou

La Déesse de la souveraineté est le concept central de l'imaginaire celtique. Notre travail a pour but d'examiner ses aspects dans *Lebor Gabala Erenn (Le Livre des conquêtes de l'Irlande)* et de prouver l'universalité de ce concept par la relecture de la *Théogonie* d'Hésiode.

Il n'y a pas d'équivalent de la *Théogonie* grecque ou la *Genèse* biblique dans la mythologie celtique. Par contre, *Le Livre des conquêtes de l'Irlande* relate des histoires mythologiques des premiers immigrants et il nous laisse voir l'archétype de l'imaginaire celtique.

Selon ce document rédigé au moyen âge par les moines chrétiens qui gardaient encore la tradition druidique, les premiers arrivants en Irlande avant le Déluge avaient pour chef une femme, Banba ou Cessair. Après le Déluge, il y eut cinq conquêtes de l'Irlande: 1° par la race menée par Partholon de Mygdonie, c'est-à-dire Petite Grèce, 2° par les Grecs de Scythie guidés par Nemed, 3° par les Fir Bolg, descendants de Nemed qui étaient retournés en Grèce, 4° par les Thúatha Dé Dánann, ou enfants de la Déesse Dana, qui sont aussi descendants de Nemed, 5° par les Goidels, fils de Mil,

venus d'Espagne. Les premiers arrivants avant le Déluge ont disparu soit par le Déluge, soit par la peste. Après le Déluge, la race de Partholon n'a pas survécu à la peste, mais les autres immigrants se sont succédé jusqu'aux enfants de Mil.

Ce qui attire notre attention, c'est que la société mythique de l'Irlande était, si l'on veut, *matrilinéaire*, et la souveraineté de l'île était détenue par la déesse ou la reine qui la concède au nouveau souverain en se mariant avec lui. Les premiers arrivants ont été guidés par une femme; dans l'épisode de la conquête de Partholon, *Le Livre des conquêtes de l'Irlande* décrit longuement l'adultère de la reine; après le massacre des Fir Bolg par les Thúatha Dé Dánann, la reine des premiers couche avec le roi des derniers; menant des combats contre les Thúatha Dé Dánann, les Goidels s'entretiennent avec trois femmes ou trois reines irlandaises qui demandent que leur nom soit donné à l'île. Ces histoires nous permettent de conclure que la déesse ou la reine est elle-même le symbole de la souveraineté de l'Irlande.

Si nous relisons la *Théogonie* d'Hésiode à la lumière de cette leçon, la mythologie grecque, elle aussi, se révèle structurée autour du concept-clé de la mythologie celtique. Gaïa, la terre-mère, a enfanté toute seule Uranos, le ciel. Contre la tyrannie de son fils-mari Uranos, Gaïa incite l'un de leurs enfants Cronos à trancher les bourses du père avec la grande serpe qu'elle a préparée. Craignant de perdre la souveraineté, comme son père, par l'un de ses propres enfants, Cronos les avale dès qu'ils sont nés. Et c'est Rhéa qui se révolte contre son mari souverain, en donnant Zeus à Gaïa pour qu'il détrône son père. Et c'est Héra qui s'efforce de mettre un frein à la fécondité désordonnée de Zeus.

Hésiode, comme le Platon du *Banquet*, nous laisse entrevoir que la société grecque était *misogyne*. L'histoire de Pandore en est un exemple

saillant. Mais les légendes mythiques des héros nous confirment que le concept de la Déesse de la souveraineté est valable dans la lecture de la mythologie grecque. Tous les héros accomplissent leurs prouesses avec l'aide de la princesse héritière du pays ennemi, et ils accèdent à la souveraineté en se mariant à la princesse ou la reine: Jason acquiert le Toison d'or avec l'aide de Médée; Persée qui a sauvé Andromède devient souverain en se mariant avec elle; Thésée sort vivant du Labyrinthe grâce au fil d'Ariane; Œdipe devient roi de Thèbes en se mariant avec la reine-veuve.

Cette tradition s'avère valable dans tous les domaines de l'imaginaire. Surtout dans la littérature populaire et parallèle comme le conte de fée, la bande dessinée et le cinéma. Parmi les héritages de la tradition celtique, sans parler des contes folkloriques comme *Peau d'âne* ou *Riquet à la houppe*, les aventures du roi Arthur et des chevaliers de la Table Ronde se construisent autour du concept de la Déesse de la souveraineté. C'est parce que la Reine a commis l'adultère, c'est-à-dire que la reine a choisi un autre roi, que le vieux roi tombe malade. Robin des bois qui se place aussi dans la tradition celtique dispute Marianne au Seigneur de Nottingham. Les héros de western, chevaliers modernes, s'efforcent toujours de protéger une femme; Superman, Batman, Zorro, James Bond ou les garçons de la *Guerre des étoiles*, les héros modernes eux aussi, s'aventurent pour sauver une femme de la menace des <<mauvais>>.

Même dans la tradition coréenne, on peut facilement repérer la Déesse de la souveraineté: la première coréenne est la mère de Tangun; la princesse de Nakrang déchire le Jomyeonggo pour la victoire de Hodong, prince de Koguryeo; Seodong, prince de Paikje, répand la chansonnette pour obtenir la main de Seonhwa, princesse de Shinla; la Dame Suro ainsi que la femme de Cheoyong ont été les objets de dispute entre l'homme et le dieu-dragon ou le <<Kwishin>>; Chunhyang était la déesse de la

souveraineté de la région de Namwon, que Monryong Lee et Hakdo Pyun ont disputée.

Seule la mythologie celtique accentue de façon exceptionnelle le concept de la déesse de la souveraineté, mais ce concept, beaucoup plus universel qu'on pourrait le croire, nous permet de lire les autres mythologies et traditions d'une autre manière.